

김혁정 개인전 '별들의 노래'

18~24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부남미술관

중견 서양화가 김혁정씨가 오는 18일~24일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부남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해안 풍경을 한층 조형적으로 해석한 그림을 통해 자연의 깊고 오묘한 속살을 들춰낸다.

'별들의 노래' 연작은 저물어 가는 바다의 하늘과 하얀 별을 강조한 작품이며,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지상 풍경은 세밀하게 묘사한 대신, 번지는 효과를 살려 하늘의 별을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마치 별이 빛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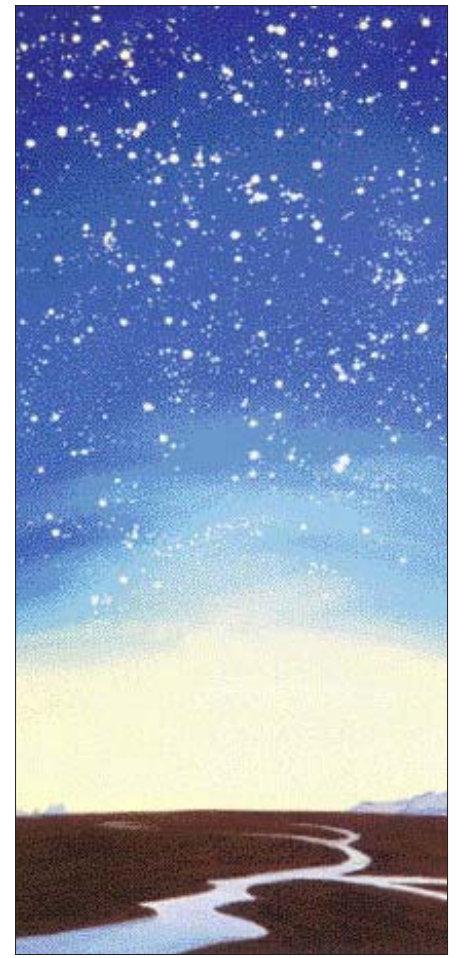
또 백일홍, 꽃무릇, 해바라기 등의 꽃을 소재로 한 작품도 눈에 띈다. 화면 가득 꽃을 그려 넣어 자연의 생동감을 담아냈고, 적절한 원색을 사용해 현장감도 살렸다.

이 밖에 단조로운 선과 넓은 화면 분할로 표현한 '해안선' 연작과 풍성한 나뭇가지에 감춰진 자연의 숨은 미학을 조명한 '나무에서 나무로부터' 연작도 함께 선보인다.

전남대 미술 교육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파리 소르본느 제1대학 조형미술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 서울, 프랑스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현재 여수 한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의 02-720-036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별들의 노래-채석강'

김영란 개인전 '시간의 기억'

내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메트로갤러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생동감을 화폭에 담고 있는 서양화가 김영란씨가 11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메트로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시간의 기억'을 주제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나무의 꺾임을 형상화한 신작을 발표한다.

반복된 붓질을 통해 나무 표면의 질감을 살렸고, 화사한 색을 통해 무성한 숲의 생명력을 표현했다.

또 푸른 색을 사용해 어둠이 깔린 숲을 환상적으로 표현했고, 나무와 여인, 새를 등장시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형상화했다.



'만남감과 지나감'

김씨는 새로운 형상의 동향전, 구상전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고 에펠드 목포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6-805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0일 앞두고

추모 시집발간·예술제·시화전 '다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0일(25일)을 앞두고 추모시집 발간, 추모예술제 등 다양한 추모문화사업이 추진되거나 준비중에 있다.

먼저 한국문화평화포럼(명예회장 고은·회장 김영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사업기획단'을 발족하고 3대 추모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문화사업은 추모시집 발간, 추모예술제, 추모시화전.

문화평화포럼은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철학을 온 국민과 더불어 가슴속 깊이 되새기기 위해 시인과 화가 및 서예인 등 문화예술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추모헌정시집'을 100일째에 즈음해 발간한다는 계획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추모 헌정시집 발간에 맞춰 추모예술제 행사도 준비됐다. 추모문화사업기획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신안군 하의도와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하의도 문화예술축전'(28일)과 '목포 문화예술축전'(29일)을 열 계획이다.

이날 추모 예술제는 추모시 낭송, 추모춤, 진혼무, 진혼곡, 추모 헌정노래 등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제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추모문화사업기획단은 오는 12월



지난 달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0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모비 제막식에서 부인 이희호(맨 오른쪽)여사가 고은 시인의 추모시가 새겨진 추모비를 둘러보고 있다.

28일 하의도·29일 목포서 추모예술제

무등산 문빈정사 앞마당에는 추모공원

서울 인사동 공화당서 추모시집에 참가한 대표 시인들의 육필 추모시, 화가들의 그림, 서예 및 전각 작품 등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추모시화 전시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대중홀'에서 상시전시회를 열고 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기증 받은 등 추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내년 '김대중홀' 재단장과 서거 1주년을 즈음해 자료전시회와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차례 순위에서 밀렸던 하의도~신의도 간 연도고 사업의 예산을 올리는 반도시 확보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해 고인을 기리고자 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악신도시에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소모할 수 있는 공간인 '김대중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다.

박준영 지사는 "아주 소박하게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그분이 추구했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협력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선스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5월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공원을 문빈정사 앞마당에 만든다고 밝혔다.

추모공원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추모비와 정치 역정을 기록한 작은 상징물이 들어서며 올해 안에 김대중기념사업회와 노무현기념사업회의 참여 속에 건립위원회와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흥겨운 판소리 무대로 초대합니다"

제 5회 서구 판소리 축제

13일까지 빛고를 국악전수관

전국의 유명 소리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흥겨운 잔치 '제5회 서구 판소리 축제-2009 빛고를 소리칭'이 오는 13일까지 광주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광주시 서구청과 전남대학교 소리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임방울국악제, 전주대사습 등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규모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담담히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들이 출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진수를 선보인다.

10일에는 윤진철(전주대사습 대통령상)씨가 공연에 나선다. 윤씨는 호방하고 장쾌한 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적벽가'를 선사한다.

11일에는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소연



윤진철



주소연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장)씨가 제자들과 '심청가'를 선보이며 12일에는 장흥 출신으로 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에는 보유자인 유영애(남원춘향제 대통령상)씨가 무대에 선다.

13일 마지막 무대는 한발국악경연대회 가야금병창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지현씨가 문하생들과 함께 흥겨운 가야금병창을 선보인다. 서구청은 빛고를국악전수관에서 매주 목요일 국악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다양한 국악 강습을 여는 등 국악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함정욱 피아노 독주회

12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함정욱(사진·남부대 교수) 피아노 독주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함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2악장으로 구성된 하이든의 '소나타 C장조 48번', 스위스의 현대 작곡가 마르탱의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전주곡', 브람스의 '소나타 F 단조' 등 고전,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거쳐 독일 뉘른베르크음악대학과 로스톡 국립음악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최고점을 받은 함씨는 로스톡 국립음대 재학시 반주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귀국 후 두 차례의 독주회를 가졌다.

현재 C.N피아노와 피아스트라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제보청기
SINCE 199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전 보됩니다. 3.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www.kijit.com

잘 들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보험종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